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 수업 소개
- 2 행사/학술/연구
- 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 7 시민정원사
- 8 시민환경대학

동문소식

- 9 동창회
- 10 동문동정
- 11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6기 모집 안내



학교소식

1

현장 중심 수업 소개

1.1 도시재생 : 서울 관악구 난곡·난향 지역

환경계획학과 김광중 교수는 도시재생 수업으로 2018년 11월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을 현장 답사하였다. 도시재생 수업 시간에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상지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난곡·난향 지역도 주거지 재생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에 방문하게 되었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결하여 오전 10시부터 현장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김세훈 교수의 도시재생사업의 소개와 브리핑을 들었다. 이 지역은 2016년 서울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었는데,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더욱이 올해 '뉴딜 정책'으로 선정되어 더 많은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서

울시의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하나였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집수리 사업을 시작하는 등 지속적·경제적인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브리핑을 들은 후, 1시간 반 동안 현장을 둘러보았다. 난곡·난향 지역은 관악산 자락에 있는 저층·저밀 주거지이고, 초입부터 점점 경사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대상지에는 '별별사진 난곡난향 도시재생' 현수막과 사진들이 걸려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및 소속감을 위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을 재생시키고 있음을 강조하고, 각 가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주민협의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한 노하우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었다.



1.2 환경관리학 전공 답사 :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환경계획학과 이동수, 윤순진, 홍중호, 오능환, 정수중 교수의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동역학, 생지화학, 비용편익분석,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환경관리학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전공 학생과 교수진은 2018년 11월 2일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를 답사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진행하는 지구대기감시(GAW)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감시소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 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지구 규모의 관측·수집·관리 및 제공을 하는 활동들을 전 지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며, 2016년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소로 평가되었다.

환경관리학 전공 답사팀은 기후변화감시소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원인 물질들의 관측 방법과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소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기후변화감시소의 시설 중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솔, 성층권 오존, 대기복사, 강수화학 등 관측을 위해 실제 포집과 농도 분석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소개 받았다.

이번 답사는 환경관리를 전공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1.3 국제개발워크샵 : 라오스 답사

개발도상국 답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각종 도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국제개발워크샵이 진행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는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가 24명의 학생과 함께 라오스에 방문하였다.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전공과 교통학 전공, 환경관리학 전공, 그리고 환경조경학과 학생들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다른 전공의 시야에서 도시 및 환경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학기 시작 전 방학부터 정기적으로 교수님과의 미팅을 통해 학생들은 라오스의 도시 및 환경 문제를 다방면에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산림파괴(Deforestation), 댐 붕괴 취약성(Dam-Flood Vulnerability), 재해(Disaster),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교통(Transportation), 도시환경과 건강 격차(Urban Environment and Health Inequality), 도시 녹지축(Urban

Green Network) 등의 주제로 7개 조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답사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위 주제를 기반으로 라오스의 도시 및 환경 문제를 구체화하였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라오스 현장답사는 라오스 현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몽족마을 답사, That Luang Lake 경제특구, VITA 경제특구, KOICA 현지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문헌조사로만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답사 기간 중 진행되었던 라오스 국립대학교 건축대학 대학원생들과의 워크샵에서는 라오스의 도시 및 환경 문제에 대해 현지 학생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전 조사 및 답사를 통해 발전시킨 각 조의 연구 결과는 책자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1.4 도시설계의 과제와 방법 : 서촌 한옥마을 답사

2018년 ‘도시설계의 과제와 방법’은 환경대학원 김세훈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으로, 설계자가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에 대해 집중하여 배우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형 수업과 성남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도시설계의 관점으로 하나의 도시를 자세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또한 현재의 큰 이슈인 도시재생에 대한 이슈와 방법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오래된 한옥마을인 서촌일대를 답사하고, 한옥마을의 도시재생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북촌과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촌이 부유층이 살았던 한옥 대저택이 즐비해 있는 동네라면, 서촌은 서민들이 사는 한옥의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답사를 통해 서촌의 특성인 현재까지 골목 구석구석에 남은 주거형 한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서촌은 조선시대 궁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살던 지역으로,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거주함으로써 그 예술가의 집들이 다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창의궁터의 일부를 방문했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사택이 들어선 치욕스러운 공간으로, 현재는 아름답기 사육이 자리하고 있다. 그 후 좁은 골목 사이에 공실인 한옥에 대해 재생과 보존이라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촌 답사를 통해 한옥마을이라는 특정 지역의 도시재생과 개발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지도 교수의 설명과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



1.5 정원예술론 : 광주비엔날레답사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담당하는 '정원예술론'은 서구정원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정원 작품을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현재의 실천행위와 관련된 정원 테마를 다룬다. 예술을 매개로한 정원에서 영감을 얻고자 2018년 10월 30일, 광주비엔날레를 답사하였다. 조경진, 손용훈 교수와 학생 24명은 광주비엔날레, 광주 폴리, 광주 송정시장 등 도시의 문화적 재생현장을 찾았다.

43개국과 165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작품을 선보인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은 다층적인 전시를 시도함과 동시에, 개최지 광주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내외 반향을 이끌어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주 전시공간인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비엔날레에 활용되었으며,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옛 국군광주병원, 5.18민주평화기념관 등의 시각예술 현장을 답사하였다.



행사/학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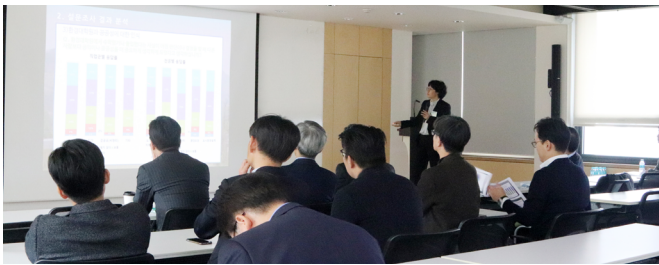
2.1 환경대학원 행사

1) 환경대학원 50주년 기념행사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환경대학원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0년을 회고하고, 미래 50년을 준비하고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와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동창회 부회장)가 동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환경대학원의 지난 50년을 회고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각 전공별로 해당 전공의 지난 업적을 회고하였으며,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전공을 넘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환경대학원의 미래 50년, 100년을 조망하였다.



<제1세션>



<제2세션>



<제3세션>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행사

2017년 9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지난 13개월 간 100만 원 이상 기부자를 초청하여 발전기금 Wall에 기부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故 고주 노용희** 초대원장을 비롯한 총 열 여섯 분의 기부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故 고주 노용희** 초대원장과 임강원 명예교수, 강완수 동문

(SGS 30기, 대아이앤씨(주) 대표), 이진수 동문(SGS 30기, (주)라운 대표) 등 네 분과 자료실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을 주도한 이혁 대표((주)OL디자인)께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하 이번에 기부 명패를 올린 명단은 아래와 같다.

- **故 고주 노용희** 초대원장
- 이진수 (SGS 30기, (주)라운 대표)
- 김종일 (도사84, SM대원건설산업 대표이사)
- 주정훈 (도사03, 서울대발전기금 팀장)
- 임강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김우진 (도사83, 국제신탁 부사장)
- 김철호 (SGS 34기, (주)메타스퀘어 대표)
- 이상석 (SGS 34기, 부산이앤이 대표)
- 임강원 명예교수
- 최막중 (환경대학원 교수)
- 2017 훌커링데이 주관기수
- 원제무 (교통74, 한양대 교수)-변창흠 (도사88(석)'92(박), 세종대 교수)
- 박선화 (SGS 34기, 현대토건(주) 본부장)
- 전상구 (SGS 34기, (주)동산대표이사)
- 강완수 (SGS 30기, 대아이앤씨(주) 대표)
- 환경대학원 최고위과정 34기
- 전병성 (도사8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김남규 (SGS 34기, 에스엠이(주) 대표이사)
- 유성식 (SGS 34기, 여수종합신도시개발(주) 사장)



故 고주 노용희 초대원장 부조, 역사 전시벽 제막식 등

환경대학원의 초대원장 故 고주 노용희 명예교수는 환경대학원이 처음 설립되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환경대학원 외에도 국토연구원의 초대원장이었으며 한국도시및 지역계획학회, 한국 지방자치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학회를 설립하고 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도시, 환경 분야의 초석을 다지고 개척하였다. 이에 환경대학원은 50주년을 맞이하여 노용희 명예교수의 업적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길이 기리려는 의

미에서 부조를 제작, 설치하였다. 이런 학교 측의 노력에 공감한 유족들은 학교 발전과 후학 들을 위하여 1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었다. 부조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용덕 前미대학장이 맡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것으로 생전의 면모를 깊이 있게 잘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부조 제막식에는 여러 명예교수와 故노용희 초대원장의 유족들(장남, 장녀, 사위, 외손자, 외손녀)이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었다.



또한 이날 역사 전시벽이 공개되었다. 역사 전시벽을 통해 우리 대학원이 어떻게 설립되고, 발전하였는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를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

경대학원의 구성원들은 소속감과 자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새로워진 환경대학원 자료실의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되었다. 기존 자료실을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 논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자료실 내에 학생회가 운영할 미니 카페를 설치하고,

재학생 공모를 통해 그 이름을 ‘아랫정원’이라 정하였다. 리모델링 예산 중 1억 원은 강완수 동문(SGS 30기, 대아이앤씨(주) 회장)이 기부하였으며, 그 뜻을 기리고자 그 호를 따라 ‘우송 라운지’ 명판을 새겨 넣었다.



2) 환경계획학과 전공 신설

환경대학원에 ‘도시·사회혁신’ 교과과정상 전공이 신설된다. 도시 및 지역의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커뮤니티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환경대학원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익을 대변하면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도시·사회혁신’ 전공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사회대학)는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회혁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SK행복나눔재단이 3년에 걸쳐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사회혁신 교육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사회혁신 인재 육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을 기반으로 우리 환경대학원은 도시·사회혁신 전공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2.2 BK21 Plus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제36차 콜로키움: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

녹색교통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송상석 처장을 초청하여 2018년 8월 31일에 제 36차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발표주제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 지적되고 있는 화물경유차와 관련된 유가보조금 제도, 경유가격 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발표에서는 화물경유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기존의 유가보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보조금, 즉 경유차 폐차 및 천연가스차 개조 보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수요관리인데,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럽의 자전거도로 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의 사례를 들었다. 송상석 처장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학생들

이 미세먼지 및 경유차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화물경유차 대책부터 도시 교통망 개선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제37차 콜로키움: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미래 전략

2018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열린 BK21 콜로키움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 장훈 센터장을 초청하였다. 기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지만 그 강도가 점차 강력해지고 생활의 밀접한 부분까지 침범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핵심 3대 요소

는 농업, 물, 인간이며 이 외에도 전 세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의 문제가 생기면서 농업과 식량 생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는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IPCC에서 말하는 적응 방법은 첫째, 리스크를 줄이고, 둘째, 취약성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받아들여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설립 목적은 국가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과학적 적응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이행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있다. 현재는 3차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센터장은 1차와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경험이 부족하여 top-down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의 적응대책은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제38차 콜로키움: 국토 도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미래 전략

BK21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사업팀에서는 2018년 10월 19일,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의 이병재 센터장을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국토 도시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미래 전략”이라는 발표 주제로 국토와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전략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및 재해특성, 재해위험을 가중시키는 도시개발, 기후변화 대비 도시방재 전략,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4) 제39차 콜로키움: 산림생태계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미래전략

2018년 11월 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8호에서 열린 BK21 콜로키움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중환 과장을 초청하였다. 임중환 과장은 Danger와 Risk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발언을 열었다. 전자인 Danger는 ‘avoid(피하다)’ 동사와 어울리는 반면에 후자인 Risk는 ‘take(감수하다)’ 동사와 연결되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생물 하나하나의 생존 전략과 저항력이 다르며, 또한 생물간, 생물-환경 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의 전망과 잠재적 영향 및 관련 리스크 측면을 다루었는데, 최근 IPCC에서 논의된 2°C에서 1.5°C로 제한치를 강화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다각도에서 설명하였다. 산림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 대비 산림 면적이 높은 특성을 가진 나라는 산림 분야에 주목하여 제대로 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산악 기상정보 활용, 관측을 이용한 추정,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modeling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여름철 산

지토사재해 및 수해, 봄철 대형 산불, 산림 건강성, 생물군집 변화 및 이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불확실성의 문제, 특히 생물을 대상으로 한 예측은 쉽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남부지역 피해 사례로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100만 그루 이상이 고사한 사건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활엽수들은 멀쩡했고, 침엽수 중 겨울에 잎을 떨어트리는 종들은 또 살아남았다. 그 당시 기후변화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이라 안타깝지만 시기가 절묘한 사건이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도 소나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에 주목하여 오히려 번성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불확실성의 문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은 부정적인 예측결과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소나무는 폭설, 우박의 피해를 많이 받는 종이라고 하며, 국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를 유발한 인위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산림생태계를 방조하기보다는 적절한 처방을 통해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Risk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의 수목을 지키려는 행동(Action)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5)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개최: **지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8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19일 통영 RCE세아트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원세션과 BK1+세션, 기획세션, 일반세션,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0월 20일 토요일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통영 연안, 방화도의 해양쓰레기실태조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BK21+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전략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4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재각 등은 재생에너지

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민참여방법론을 소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조은별은 지역사회에서 환경에너지 교육을 실시하는 에너지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정승호, 구자건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해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혜는 일본에서의 전력 자유화의 의의와 가능성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3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행사/학술/연구

1) 클레이저(Edward Glaeser) 교수 초청 특강:

"Big Data, Big Cities: computer vision uncovers predictors of physical urban change"

환경대학원은 7월 10일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클레이저 교수를 초빙하여 "Big Data, Big Cities: computer vision uncovers predictors of physical urban change"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클레이저 교수는 도시별 상업시설에 대한 평균 리뷰를 공유하는 지역기반 소셜네트워크인 Yelp 플랫폼과 Computer Vision을 활용한 Streetscore 측정방법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동, 주택 가격, 근접도시의 물리적 및 인구학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특강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 글로벌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수 및 전문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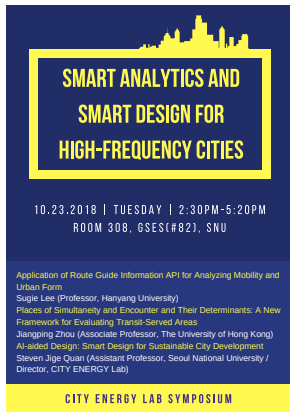


2) 도시에너지연구실 심포지엄:

Smart Analytics and Smart Design for High-frequency Cities

2018년 10월 23일 도시에너지연구실에서는 "Smart Analytics and Smart Design for High-frequency Cities"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첨단 컴퓨터 기술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분석 및 설계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포지엄에는 환경대학원 Jige Quan 교수와 한양대학교 이수기 교수, 홍콩대학

교 Jianping Zhou 교수가 도시에 대한 서로 다른 초점으로, 시공간적 차원에서 높은 빈도의 정보 도시와 도시 설계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 운송 효율성, 사회적 상호 작용을 포함하였다. 이 토론은 높은 빈도의 정보와 기술을 가진 도시에서 새로운 과학적 방향과 아이디어를 탐구하는데 기여하였다.



2.4 교통학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제47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지자체 교통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활용



2018년 9월 14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국내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콜로키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재직 중인 한상진 박사의 도로부문 안전성과지표 평가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시작 전, 토론자인 심재익 박사의 마중물 발언을 시작으로 5030 속도관리 정책의 도입과 차대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보차혼용도로와 횡단보도에 대해서 사고 감소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강연자인 한상진 박사는 안전성과지표 평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높은 보행자 사망자 수를 설명하였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 관할도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그 특성상 보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적다. 반면 지자체 관할도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집

행할 여유가 없고 문제 개선에 관심 또한 부족하다. 2008-2017년 도로 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세 결과를 보면,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시군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안전성과지표는 교통안전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협의를 통해 평가 항목을 정의하고 후보 지표를 발굴한 뒤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지표를 선별하여 전문가들을 상대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이 지표를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여 본 결과 지자체별로 부족한 영역이 나타나, 지자체 간 안전 개선 사업 및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토론자인 임동욱 박사는 지표항목에 대해서 지표 선정 시 사고와 연관된 지표, 회전교차로 설치 비율 지표 등이 추가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법규 위반 지표의 경우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과 별개로 단속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 제48회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빅데이터와 국가교통조사(여객 부문을 중심으로)

2018년 11월 16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주최로 국내전문가 초청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재직 중인 조종석 박사의 여객부문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와 국가교통조사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빅데이터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의 흐름이며 빅데이터 사업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부에서는 빅데이터 사업단 연구소의 연구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교통조사는 민간부문이 아닌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교통조사는 SOC 투자평가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새롭게 시작되었다. 국가교통조사에서는 OD Data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 다음 원단위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들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조사로 도출되는 지표들을 활용하여 교통수단분담률과 10년 동안의 통행행태 등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표본조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부에서는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표본조사에서 빅데이터로 점차 대체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 표본을 줄이고, 점차 빅데이터를 활용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2015년도에는 표본 조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소통지표, 교통환경지표, 교통사고 노출도 등 많은 자료들이 생성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교통조사가 발전해나가기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인 신성일 박사는 기존의 국가교통조사 패러다임으로는 국가교통조사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간극을 줄이기 어렵다며, 국가교통조사와 빅데이터의 활용보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에게 맞는 실질적인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5 환경관리 전공 행사/학술/연구

1) 기후변화 이슈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노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수업에서는 2018년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남재철 전 기상청장을 초청하여 “기후변화 이슈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는데 전반부에는 기후변화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한 내용, 후반부는 기후변화 원인과 전 지구적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영향들 중 폭염 및 열대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로 인한 한반도 내의 인

명 피해와 작물 재배 및 어장의 변화, RCP8.5 시나리오를 반영한 HadGEM3-RA 모델의 폭염 및 열대야 모의실험 자료 등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미래 기후의 심각성이 전달되었다. 인구 및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초래된 기후 변화에 대한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 선언 등을 언급하며, 전 지구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표 중간과 이후에는 강연자의 남극 월동 체험 및 월동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와 기상 및 기후 관련 국가기관 및 연구소 등 현업에서의 기후 변화 대처에 대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본 세미나는 수업이나 여타 강연들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남극의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실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었다. 또한 강연자가 세미나 후반부에 언급한 극지 연구 필요성에 관한 강연은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제시해주었다.

2.6 도시·환경·교통 융복합 전공 행사/학술/연구

1)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 환경 교통 융복합 연구실에서는 2018년 11월 23일 사회적 기업 ‘아트 버스킹’의 김경서 대표를 초청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발생하는 문화 백화현상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투어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와 사례를 다루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거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거주민들이 주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높은 주거비용 및 일자리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실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 애착을 갖고 거주하는 사람은 고령층이지만, 축제나 여러 지역 활동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경서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

고자 진행된 문화재 야행, 마을 기금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해결과 문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열의가 돋보였던 자리였다.



2.7 환경조경학과 행사/학술/연구

1) 2018학년도 2학기 과제전



12월 19일 수요일 10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는 환경조경학과 학생들이 이번 학기동안 수업에서 진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과제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과제전에는 환경생태계획(지도교수 송영근), 환경설계와 디지털 미디어(지도교수 조정희), 조경세미나(지도교수 Wybe Kuitert), 정원설계(지도교수 성종상, 정우건, 조성아), 도시경관시스템스튜디오(지도교수 Wybe Kuitert), 도시설계스튜디오2(협동과정도시설계과목, 지도교수 김세훈), 도시공간 연구 스튜디오(강사 양재찬) 등 총 7개수업의 29개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이번 학기 과제전에는 안승홍(석사 94), 오형은(석사 94), 이현강(석사 95), 유형식(석사 95), 진린(석사 95), 양성민(석사 97), 이호영(석사 02), 홍승후(석사 06), 이남진(석사 07) 총 9명의 동문

이 참석하여 작품 크리틱 및 우수작 선정을 하였다. 대상에는 환경조경학과 김수하, 환경계획학과 강인구, 협동과정도시설계 길은비의 “Transplant Boundary”(도시설계스튜디오2)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에는 환경조경학과 서승우, 협동과정도시설계 권주안, 협동과정도시설계 이사벨라의 “Re: Remove, Regain, Rethink”(도시설계스튜디오2)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는 환경조경학과 이가영 “Serendipity Garden”(정원설계)와 협동과정도시설계 최자은, 협동과정 전혜지의 “잠재력을 지닌 숨겨진 중심지를 찾는 연구”(도시공간연구스튜디오), 그리고 환경조경학과 이창현, 환경조경학과 전취, 환경계획학과 아사프 나디아의 “Back to the Beginning”(도시경관시스템스튜디오) 총 세 작품이 선정되었다.



2) 환경보전과 관리: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

환경조경학과 손용훈 교수가 담당하는 ‘환경보전과 관리’ 수업은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보전’, ‘도시녹지’, ‘산림정책’, ‘도시하천’, ‘역사환경의 보전’ 그리고 ‘국토경관의 보전’ 등을 주제로 강의와 학생들의 참여형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 및 정책 전문가 3명을 초청하여 생태환경 보전과 일상 속 공간의 가치, 국토경관관리 정책의 최근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국토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적 대안을 고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태복원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조동길 박사의 특강에서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비

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자연환경복원 분야에서의 주요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자연의 천이과정과 실제 모니터링 사례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복원 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비용, 민원 대응형 관리 기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복원 분야에서의 법·제도적 변화와 생태환경의 이해에 기초한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일상 속 공간의 가치와 기록을 주제로 이루어진 공간잇기 서준원 대표의 특강에서는 잊히기 쉬운 일상생활 속 공간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실제로 계동이라는 마을 속 잊히기 쉬운 공간

을 찾아 기록한 지도를 통해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전파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세대 간의 소통과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공간의 이야기와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일상 속 공간의 가치를 찾아내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스스로 고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토경관정책과 관리 주제로 이루어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박사의 특강에서는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전면개정 되기까지의 정책 변화와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의 경관을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에 적용하는지 살펴보고, 경관법 개정 과정에서의 보완사항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관점에서 경관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관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향후 국토경관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본 특강은 환경보전 관리 수업의 일부로 진행되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강의로 진행하였다. 특강 일정은 포스터를 통해서 공지되므로 관심 있는 사람은 다음 기회에 참석하기 바란다.



3) 정원설계 스튜디오 특강: Gardens in the real-view mirror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의 정원설계 스튜디오 수업에서 국내에서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세계로 유명한 오이코스 디자인 (Oikos Design) 대표인 네덜란드 조경가 아네모네(Anemone Beck Koh)를 초빙하여 특강을 열었다. 11월 19일 4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은 "Gardens in the real-view mirror"라는 주제로 82동 405호에서 이루어졌다. 아네모네는 국내 작품인 신도림역

디큐브시티를 포함하여 개인주택정원, 중국 정원박람회 작품 등을 사례로 디자인 구상부터 시공과정까지의 프로세스와 설계개념에 대해 강의했다. 정원에서 퇴비를 만드는 등 생태적 기능에 대해 논했고, 도시에서 정원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정원이 무엇인지, 정원설계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끝냈다.



2.8 석박사과정 학생 국내외 학술활동

1) 국제 학술 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박동하**(박사수료)는 2018년 8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CAPP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Analysis on the Reason of the Coupling between Housing Price Fluctuations and Trading Volume -Focused on the Recognized and Predicted Change of Housing Price”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가격 변동과 거래량의 동조화현상을 투기 수요와 소비 수요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동조화의 수준을 투기지역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소비자심리지수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전국의 광역시 및 도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오다원**(석사과정)은 2018년 8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CAPP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Social Housing Supply Using REITs Model - Based on The Case of Ho Chi Minh City, Vietnam”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리츠 방식을 임대주택 공급에 적용할 경우 공공의 비용을 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호치민 주택시장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반살**(석사과정)은 2018년 12월 10-12일에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 34회 Passive and Low Energy Architecture에서 “Estimating Impact of Green-Blue Infrastructure on Air Temperature Using Remote Sensing”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풍향에 근거한 수역과 그린 스트립으로 인한 냉각 효과와 범위에 대해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강인구와 주보라**(이하 석사과정)는 2018년 8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Enhancing Sustainable Mobility: Implementing Shared Motorcycle Station in the Public Transit System-Based on Hanoi’s Case”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개인 교통수단 중 오토바이 사용이 일반적인 한편,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MRT와 BRT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시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교통발전단계 간 과도기를 연결해줄 수단으로서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된 공유 오토바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조규원**(석사과정)은 2018년 8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CAPP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도시구조와 공간 사용에 대한 젠더 불평등의 상관성 - 서울시 관악구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비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성 1인 가구보다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장리아**(박사과정)와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Building and Environment 제143권에 “Development of a multimedia model (IIAQ-CC) to assess climate change influences on volatile and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ndoor environments”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 및 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실내모형을 개발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박시내**(박사과정)는 2018년 10월 22일 일본에서 개최된 World Convention on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학회에서 “The effect of post-communism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 empirical study on lifetime of home appliances”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과거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전자제품을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 **환경관리학 전공 박진영**(박사과정)은 2018년 7월 14-21일 열린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에서 “Between Promotion and Safety: Legal and Policy Obstacles to Achieving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s Nuclear Energy Act System”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원자력법 체제의 변화과정과 원자력산업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자력진흥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탈핵 진영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장애물들을 분석했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소유미**(박사과정)는 2018년 7월 1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에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in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s; Germany and Korea Case Stud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협동조합 각 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합원의 참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조합의 수익 및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설문을 통한 참여 조합원의 환경적·사회적 인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는가를 확인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심혜영**(박사과정)은 2018년 10월 17-19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Sustainability 2018(ICES 2018)에서 “A Study on the Particulate Matter Improvement By Urban Forms Variation Using the ENVI-met Model”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는 미세먼지(PM10)농도가 아파트 배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Envi-me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아파트 배치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축적되는 지역에 대한 단기적 전략을 제안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최종민**(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8년 11월 17일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원자력정책과 안전규제제도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정책과 규제제도-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중 행위자에 중심을 맞추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의 관련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박채린**(석사과정)은 2018년 9월 17-20일 개최된 IG3IS/TRANSCOM 워크숍과 2018년 10월 24-26일 University of Utah에서 개최된 CO2-Urban Synthesis & Analysis (CO2-USA) Workshop에서 “Assessment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variations over the Seoul capital area from space” 제목으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OCO-2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다룬 연구로 서울과 인간 활동의 영향을 덜 받은 지리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이산화탄소 농도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으며, 고해상도의 이산화탄소 관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심소정**(석사과정)은 2018년 9월 17-20일 개최된 IG3IS/TRANSCOM 워크숍에서 “Comparison of Korean carbon emission inventory with satellite-measured XCO2 from Orbiting Carbon Observatory-2”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과 여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값과 OCO-2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값을 비교하여 인벤토리와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값이 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다면 인벤토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박하영**(석사과정)은 2018년 10월 24-26일 University of Utah에서 개최된 CO2-Urban Synthesis & Analysis (CO2-USA) Workshop에서 “Can Seoul Reduce CO2 Emissions By 2030?”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전 지구 온실가스 인벤토리인 ODIAC과 EDGAR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더 정확한 시공간적 배출량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유영수**(박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제43호에 “Revealing the mechanism of urban morphology affecting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in Seoul, Korea”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서울 저층주거지에서 열성능이 부족한 문제적 주택의 분포를 저층주거지의 모포로지 특성, 토지 이용특성, 주택의 건축적 특성으로 설명한 연구로서 기성 시가지의 경우 주거의 난방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 성능이 부족한 주택에 대한 재투자를 지연시키는 도시 공간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유영수**(박사과정)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제47호에 “Who lives in and owns cold homes? A case study of fuel poverty in Seoul, South Korea”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의 열 성능과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자가 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추운 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연료 빈곤 정책이 저소득 임대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등의 직접적인 무상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주거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노인 복지 정책, 나아가 저층주거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료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윤승용**(박사과정)은 2018년 11월 26-28일 대만의 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ICLEE(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Landscape Changes in the Suburban Village Deregulated from Green-belt, South Korea: Focusing on Changes of Livestock Houses and Farmfields to Factories and Warehouses”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화에 따른 한국의 근교 농촌의 경관변화를 살펴보는 데, 대상 마을에 대해 물리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인식을 심도있게 들여다 봄으로서 한국의 농촌경관 변화의 주요원인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조형래**(박사과정)와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CITY+2018 국제 컨퍼런스에서 “Investigating Built Environmental Factors for Negative Emotions in Residential Areas facing Urban Decay in Nangok, Seoul, South Korea by interviews and EEG analysis”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는 쇠퇴하는 주거지역인 관악구 난곡동의 물리적 환경적 요소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보다 객관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와 뇌파분석(EEG) 방법론을 통하였다. 해당 연구는 물리적 요소인 빈집 클러스터와 좁고 높은 옹벽 보다 관리적 요소인 무단투기 쓰레기 더미 및 높은 차량통행 등이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 ◎ **환경조경학 전공 이찬중**(석사과정)과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 **원종철 대표**((주)쓰리디포커스)는 제55회 세계조경가협회(IFLA)에 “Smart Library for 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LIM)”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식재 라이브러리의 부재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나무 모델 제작 소프트웨어인 스피드트리(Speed Tree)와 3D 소프트웨어인 3D Max, 라이노의 플러그인인 Lands Design 등 3가지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나무를 제작 및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세 가지 대안 중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 ◎ **환경조경학 전공 서승우**와 **유수하**(이하 석사과정)와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8월 29일, 인도네시아 세마랑에서 열린 ICSADU(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in Architectural Design and Urbanism)에서 학술발표를 하였다. 서승우(석사과정)는 “Investigating problems of vehicle parking in a low-rise residential area in Nangok-dong, Seoul”라는 제목으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을 대상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수하(석사과정)는 “Investigation of Urban Places in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G-Valley)”라는 제목으로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조사와 향후 G-Valley의 수공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손희정**(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1월 26-28일 대만의 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ICLEE(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urban neighbourhood parks evaluated by ecological indicators”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내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위치에 따라 산, 강, 도심형으로 분류하고, 지표를 활용한 공원 내부 평가와, 내외부의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InVEST 평가를 각각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의 위치에 따른 유형별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잠재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도출하였고 각 공원의 유형 별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목표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원수연**(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1월 26-28일 대만의 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ICLEE(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Assessment of forest re-vegetation stages by comparing with reference ecosystem” 제목으로 학술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이는 참조생태계를 활용하여 산림 복원단계를 제시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도시 내의 훼손된 산림 복원지역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복원 단계를 자연림, 참조생태계, 생태복원지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식생구조(수고, 흉고직경, 피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김중희**(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1월 26-28일 대만의 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ICLEE(International Consortium of Landscape and Ecological Engineering) Conference에서 “Simulated greening effect on the mitigation of micro-climate in urban areas during the hottest seasons”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은 열 환경에 취약하고 녹지가 부족한 고밀 시가지 지역에서 소규모 녹화의 미기후 완화 정도를 추정한 것으로, ENVI_MET 시뮬레이션과 실측을 병행하여 소규모녹화 특성 및 유무에 따른 미기후 요소(대기온도, 상대습도, 평균 복사온도)와 열 쾌적성 평가지표(UTCI, WBGT)를 분석한 결과 녹화별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춤과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열 스트레스가 극심한 구간이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Lin Jiayi**(석사과정)와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0월 22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3rd International Potsdam Greenhouse Gas Workshop-Najing Form leaf, soil & canopy to remote sensing & modeling Conference에서 “A comparison of single-tree AGB estimation derived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terrestrial LIDAR-based methods”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상라이다의 3차원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안에 있는 수목을 단목별 단위로 스캔한 결과, 산림과 다른 도시 내부에 있는 수목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평가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환경조경학 전공 Zhen Han**(석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8년 10월 10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포즈담 GHG conference에서 “Quantifying photosynthetic canopy structure and the ecological functions by using seasonal terrestrial LiDAR dataset”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내용은 잎이 없는 계절과 잎이 많은 계절에 1년 이내에 찍은 양측 지상 라이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광합성 구조를 정량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라이다에서 파생된 캐노피 구조 변수인 나무높이, DBH, 크라운너비 및 길이에 따른 대기오염 완화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는 캐노피 내부와 외부의 미기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미기후 완화효과는 여름철에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다.

2) 국내 학술 활동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김영재**(박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계획 제53권 5호에 “발전 국가의 산업단지와 산업도시 형성 요인과 효과: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창원 기계공업기지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의 주도 하에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여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이루어낸 발전국가의 특성이 국토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창원 기계공업기지를 비교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 ◎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정이레**(박사과정)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계획 제53권 6호에 “소득수준과 주택특성에 따른 난방에너지 소비의 역진적 인과구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소득수준을 비롯한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구조화된 인과관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과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 ◎ **도시설계학 협동과정 김태오**(박사수료)와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토계획 제53권 4호에 “광주대 단지의 재조명: 공업단지에 의한 자족적 신도시로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광주대 단지는 1971년 발발한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인해 실패한 이주정착지 사업의 표상이면서도,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현 성남시의 모태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광주대단지 사건 전후를 통시적으로 일관되게 연결해 주는 유일한 기제인 공업단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성남시의 구조적 고용기반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였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철거 이주민 정착지가 자족적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를 밝혔음에 그 의의가 있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부동산 연구 제 28호 2호에 “통근자의 가구 및 교통 특성과 이사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논문은 통근시간과 이사의향간의 상관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SPSS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대한교통학회지 제 36호 4호에 “스마트 기기가 직장인 통근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통근시간의 길이의 상관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SPSS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가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GRI연구논총 제 20호 4호에 “수도권의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교통특성 이외 인문사회 특성과의 상관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SPSS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인문사회적인 특성이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 및 이승봉**(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로학회 제 20호 4호에 “계절 및 회원 특성이 공공자전거 통행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공공자전거의 이용률 개선을 위해 계절특성별 공공자전거 이용률 및 이와 관련 된 토지특성 변수와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공공자전거 운영 및 개선사항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 **교통학 전공 장재민 및 허은진**(박사수료)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GRI연구논총 제 20호 3호에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및 정지선 설계기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신호교차로에서 혼잡률이 높은 만큼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설계기준을 개선하여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연구이다.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혼잡도 완화 및 안전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 **환경관리학 전공 김나현**(박사과정)과 **김보람**(박사과정)은 한국교통연구 제25권 제4호에 “장기에너지계획(LEAP) 분석모형을 활용한 서울시 도로·교통부문 대기오염관리 정책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환경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부문에 주안점을 두어 현 서울시 중장기적 도로·교통부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장기에너지계획 분석모형(LEAP)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김청일**(박사과정)은 한국정부학회 제30권 제3호에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기후협약들이 채택·이행되는 동안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전략 연구에 나타난 양상을 검토하여 연구의 흐름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국내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손원익**(박사과정)과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바이오경제연구 제1권 제2호에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 바이오화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국내 바이오경제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순환경제와 바이오화학 산업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 ◎ **환경관리학 전공 김지혜**(박사과정)는 환경사회학회의 ECO 제22권 2호에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공유도시,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가능성 전환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 가운데 나눔카와 따릉이,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다.
- ◎ **환경관리학 전공 류주현**(석사졸업)과 **최종민**(박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일본연구논총 제47권에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담론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의 일본 국내 비준을 둘러싸고 관련 주요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담론을 분석하였다. 담론분석은 각 행위자들의 담론 참여 동기와 담론에 대한 접근 시각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과로 주요 행위자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보다는 자국 관련 산업의 이익 보전을 공통된 목표로 함을 알 수 있었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장림**(박사과정)은 전통조경이론연구 제36권 3호에 “한정우기(閑情偶寄)를 통해 본 이어(李漁)의 조원(造園)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거실부와 종식부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어의 조원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그의 네 가지 조원 이론의 유형을 추출·해석함으로써 그의 담론적 논의에 나타난 독창적인 가치와 의의를 조명하였다.

- ◎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용진**(박사과정)은 농촌계획 제24권 4호에 “뉴스데이터의 LDA 토픽 분석을 통한 장수군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측정 및 유형화함에 있어서 기존 정책평가 또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와 차별화된 뉴스데이터 텍스트분석을 통해서 국내 농촌지역에 수행되는 사업의 관광 및 복지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거주민의 시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균형에 맞게 보완하여 정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 **환경조경학 전공 김나영**(박사과정)과 **송영근 교수**(환경조경학과), **이근호**(참생태연구소)는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제115호에 “Change in the Wetland Vegetation Structure after the Ecological Restoration”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습지 생태복원의 단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천 연희자연마당 생태습지, 익산 소라산자연마당 생태습지, 부산 이기대자연마당 생태습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습지 식생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습지 생태복원 모델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생태복원 습지에서 지속가능한 복원 목표와 식생 구조 변화를 반영한 유지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9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ICAPPS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김승정(석사과정)은 2018년 8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에서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n 1914 on urbanization in Korea”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1914년에 일제에 의해 시행된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전통적인 지역중심지들의 향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박선미(석사과정)는 2018년 10월 29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초기 자가소유계층 형성에 관한 연구: 1970-80년대 아파트 분양시스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1970-80년대 정부가 제시한 아파트 분양제도의 작동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가소유 가구로 진입할 수 있었던 계층의 범위를 규명하였다.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뤄진 미시적 차원의 개별가구 행위에 주목하여 제도의 정책적 의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 ITS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 **이태양**(석사과정)과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8년 한국 ITS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Who has a long commute time but high commuting satisfaction?”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대국민 교통안전 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2018년 대국민 교통안전 논문 공모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만족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우수상 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한 2018년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고령화시대 및 자율주행 버스 시대를 대비한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철도 창의 작품전 은상 수상

교통학 전공 장재민(박사수료)과 **이준호**(석사과정)는 한국철도학회에서 주관한 2018년 철도 창의 작품전에서 “철도역사내 현 위치 정보 서비스 개선을 통한 혼잡도 개선”을 제안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환경관리학 전공 이성재(박사졸업)는 2018년 2월 1-2일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한국환경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국내 에너지 고지서 사업의 전력사용 감축 효과 분석” 제목의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이웃과의 전력소비량 비교 정보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 사업이 전력 소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 최우수포스터논문상

환경관리학 전공 강미량(박사과정)은 2018년 6월 18-2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한국기후변화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탄자니아 REDD+ 사업의 비용·편익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으며 최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연구는 탄자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4개의 REDD+ 시범사업의 추진비용과 탄소배출권 확보로 인한 현금 가치 및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선택가치), 존재·유증가치의 비현금가치를 포함한 편익 분석을 통하여 REDD+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RED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기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환경관리학 전공 심소정(석사과정)은 2018년 10월 29-31일 개최된 한국기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월 단위 온도변동성에 따른 부문별·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및 잉여 전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으며,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중 하나인 온도변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부문별, 지역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낭비되는 잉여전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서린(박사과정)은 2018년 11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제2회 국립공원 논문공모전에서 “북한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논문으로 장려상(국립공원연구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해당논문은 북한 원전을 1차 자료로 하여 북한의 보호지역의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고 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임진영(석사과정)은 2018년 11월16일 국립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 서남부권 둘레길의 실효성 분석”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서남부권의 둘레길 환경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한 지표에 의거하여 둘레길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2018년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 지원사업 공모 최종선정

환경조경전공 이상아와 이진희(이하 석사과정)는 어린이를 위한 작은 숲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최종선정 되었다. 응봉산의 절벽에서 살고 있는 가상 속 새 가족을 위한 이야기를 테마로 잡았고 작품이름은 “둥지를 나온 아기삼남매”이다. 18년 5월 9-27일까지 직접 시공을 하였고, 기존의 녹음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이들이 아기 새가 된 것처럼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정원을 만들었다. 이후 10월 29일에 ‘2018 꽃피는 서울상’에서 ‘꽃피는 이야기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에버스케이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환경조경전공 이상아와 김명천(이하 석사과정)은 2018년 11월 30일에 2018년 에버스케이프 공모전에서 “SALAD CONTAINER”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경의선 광장의 공유지에 도시 농업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해법 중 하나이다. 스마트 컨테이너 구조 및 시스템의 개발과 디지털트윈-데이터-블록체인으로 구성되는 블록체인 에코시스템, 퍼스널 푸드컴퓨터 등의 테크놀로지를 제시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3.1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문화적 도시재생,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다’



마지막으로 구자훈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 김미영 연구위원(부산발전연구원), 박은실 교수(추계예술대학원), 백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다’라는 주제로 2018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최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본 심포지엄은 그와 같은 문화적 도시재생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 밖에 공간계획, 예술기획 그리고 장소 만들기 등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정진 환경계획연구소장(환경조경학과)의 환영사와 성종상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화재생에 관한 다양한 기초발제와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의 사회로 기초발제에는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문화풍경의 변화, 도시계획의 대응’, 이동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의 ‘도시재생의 문화적 전환의 역설’ 발제가 진행되었다. 본 발제는 손경년 대표(부천문화재단)의 ‘문화적 재생과 장소성: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에서 B39로의 변신’, 한영숙 대표(주)사이트플래닝의 ‘부산 지역공동체 소통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센터-산복도로 생활자료관(이바구공작소)의 운영 사례’, 정성엽 차장(현대카드 Brand 본부)의 ‘지키기 위한 변화, 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작은 경제의 도전’, 최도인 본부장(메타기획컨설팅)의 ‘통영 캠프 마래: 12스쿨 프로젝트’ 발제가 진행되었다.



3.2 영화로 보는 북한 도시와 경관 포럼

2018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018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영화로 보는 북한 도시와 경관’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환경계획연구소, 리얼디엔지프로젝트 기획위원회, 정립건축문화재단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와 영화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도시계획, 도시문화와 일상 경관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도시경관 연구의 단초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포럼은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의 축사와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첫째 날(12월 6일)은 ‘영상으로 보는 평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고구려 옛 수도, 평양(1955)’과 ‘평양의 사계절(1995)’이라는 북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으며, 이후 임동우 교수(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의 ‘자생하는 도시, 평양’ 주제발표와 황두진 소장(황두진건축사사무소) ‘한반도, 중소도시의 꿈: 개성과 신개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이영성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12월 7일)에는 ‘영화로 보는 평양의 일상 경관’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평양의 일상 경관을 보여주는 두 다큐멘터리 영화인 ‘천리마 축구단(2002)’과 ‘어떤 나라(2004)’를 상영했다. 이후 시간은 서영애 소장(기술사사무소 이수)의 진행으로 조선희 작가(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방은진 영화감독의 두 영화와 북한의 일상 도시경관에 관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12월 8일)에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북한으로 영화를 배우러 간 안나 브로노이스키 감독의 이야기인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2013)’를 상영하고 영화감독 안나 브로이노스키와 정현주 교수(환경계획학과),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시네마 토크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의 ‘영화와 엮서를 통해 평양의 도시계획

과 전재복구’의 주제발표와 전영선 교수(건국대 HK통일인문학 연구단)의 ‘도시풍경, 후경에서 전경으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박성태 상임이사(정립건축문화재단)의 진행으로 영화로 보는 북한 도시와 경관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3일에 걸친 이번 포럼은 북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영화 상영과 이후 10여 명의 도시, 문화, 경관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북한의 영화와 도시, 일상 등에 관심이 있는 100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3.3 환경계획연구소 과제 (2018.7~12 종료 기준)

NO	과제명	연구 책임자	발주기관
1	구로 도시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프로젝트	조경진	민간기관
2	베트남 하이반패스 도시설계자문	김세훈	오씨씨홀딩스
3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숲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안 모색	윤순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포용성을 고려한 투자평가 지표 개선 연구	장수은	국토연구원
5	[3차년도] 파라토피아: 남북한의 평행적 도시 건축	서예레	서울대학교
6	실측기반 초고정밀 3차원 수관구조의 재현과 동태모델링의 피지빌리티에 대한 연구	송영근	교육부
7	하천 내 유기화합물의 생지화학적 특성에 따른 하천-대기 간 이산화탄소의 이동량 변화	오능환	교육부
8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관리방안 검토용역	이석정	고양시
9	근교농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 조사 분석	이영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 화물차 대체 시나리오 분석	윤순진	정책기획위원회
11	성남시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수요 및 편익추정	김성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	Ranking/Evaluations of Korean Corporations (targeting transportations and electronic sectors) for Effective Efforts to Address Climate and Energy Issues Research Project	윤순진	(재)한국세계자연기금
13	토지이용 및 개인 변수와 고령인구 교통사고 간의 관계	김태형	교육부
14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분석	이영인	한국개발연구원
15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16	2018 수도권통합요금 정상검증 용역	이영인	수도권교통본부
17	"휴대폰 업사이클링을 통한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추정과 BTL사업화 방안연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이영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대기모델링을 활용한 수도권 도시외곽림의 도심미세먼지 저감효과 시범모형 개발연구	오능환	국립산림과학원
19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 연구용역	김경민	금천구
20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1	농촌다운 환경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연구용역	손용훈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22	바람을 품은 섬 풍도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S/W) 용역	손용훈	안산시
2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관리방안 연구	윤순진	정책기획위원회
24	차량경로 분석체계 고도화 및 경로자료기반 혼잡분석기술 개발	이영인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
25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추정	장수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김경민	국토교통부
27	한반도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예측 시스템 개발	정수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국가교통DB 검토 및 교통부문 쟁점 연구 중 KTDB 네트워크 검토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29	훼손 유형별 진단평가 체계 및 생태복원 모델 개발	송영근	환경부
30	용산 도시투어 기획 및 운영	조경진	한국토지주택공사
31	산림관광 상품으로서 정원가도(庭園街圖) 구축	성종상	산림청
32	위성 기반의 툰드라 지역 탄소와 물 플럭스 시공간 패턴 분석	송영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김성수	한국개발연구원
34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숲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적 접근 방안 모색	윤순진	미래창조과학부

교수 동정

환경계획학과 전상인 교수

I 단행본 간행

- 공간 디자이너 박정희 (기파랑, 2018)
-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공저, 진인진, 2018)

I 외부특강/기조강연

- 2018.8.29 서울대 신입교원워크숍
“교수라는 직업, 대학이라는 직장, 그리고 서울대”
- 2018.9.5.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으로 읽는 한국의 민주주의”
- 2018.11.3. 한국교육개발원·충남교육청 학교공간포럼 <배움의 공간을 이야기하다>
“공간환경 변화와 미래교육 방향”
- 2018.11.23. 환경계획연구소 심포지엄 <문화적 도시재생,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다>
“문화풍경의 변화, 도시계획의 대응”
- 2018.11.27. 서울대 전문대학원 연계 정책 심포지움
“서울의 도시계획, 평양의 수도계획”
- 2018.12.7.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Everscape Forum <Smart City, Smart Future>
“스마트도시의 인문사회학”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

I 윤순진 교수는 아래와 같은 논문을 게재, 저서를 집필하였다.

- 환경교육 31권 3호(9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정성지·최수정)
- 공간과사회 65권(9월)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제주도 육상풍력”(이경민)
- 일본연구논총 제47권에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담론분석”(류주현, 최종민)
- 2018년 9월 Sharachchandra Lele 외 6명의 학자들과 함께 Rethinking Environmentalism (The MIT Press) 공동 집필

I 다수의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발표를 하였다.

-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2018 XIX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ISA, 세계사회학대회)의 RC24(Environment and Society)세션에서 “Citizen Participation-Based Energy Transition Experiments in a Megacity”라는 제목으로 단독발표를 하였다.
- 8월 한국생물과학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Biological Sciences)에서 “Residents' Participatory Forest Management: Past and Present”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발표를 하였다.
- 8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개최한 22nd REFORM Group Meeting, Salzburg: Energy Democracy and Climate에서 홍종호 교수와 함께 “Energy Transition and Democracy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공동·교신).
- WWF Korea에서 10월에 개최한 CLIMATE ACTION CONFERENCE 2018에 참여하여 “The Evaluation of the Efforts of Korean Corporations to Address Climate”이라는 제목의 단독발표를 하였다.
- 10월 International Human Rights Network(H.R. Network)에서 개최한 International Human Rights Network (H.R.

Network)-2018 Symposium에 참여하여 “Climate Change &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단독발표를 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에 참여하여 “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라는 제목의 단독 발표를 하였다.

▶ 또한 경향신문 ‘녹색세상 고정필진으로 활동하며, “독일서 띄운 에너지전환 편지(11.22)”, “정부 환경 정책이 주는 ‘신호’(10.25)”, “태양광 입지 반대 유감(9.27)”, “기승전 탈원전’ 보도(8.30)”, “사사건건 탈원전 시비(8.2)”, “잊지 말자, 4대강 찬동 인사(7.5)” 등의 칼럼을 썼다.

환경계획학과 정수종 교수

▶ 정수종 교수는 2018년 7월, Science advances 저널에 “Accelerating rates of Arctic carbon cycling revealed by long-term atmospheric CO2 measurement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Global change biology의 “Influence of winter precipitation on spring phenology in boreal forest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에 “Slowdown of spring green-up advancements in boreal forests.”라는 제목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 Jeong, S. J., Bloom, A. A., Schimel, D., Sweeney, C., Parazoo, N. C., Medvigy, D., ... & Michalak, A. M. (2018). Accelerating rates of Arctic carbon cycling revealed by long-term atmospheric CO2 measurements. Science advances, 4(7), eaao1167.

- Yun, J., Jeong, S. J., Ho, C. H., Park, C. E., Park, H., & Kim, J. (2018). Influence of winter precipitation on spring phenology in boreal forests. Global change biology, 24(11), 5176-5187.

- Park, H., Jeong, S. J., Ho, C. H., Park, C. E., & Kim, J. (2018). Slowdown of spring green-up advancements in boreal forest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17, 191-202.

▶ 그 외 여러 매체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다.

년월일	홍보처	홍보명
2018.07.12	서울경제	"온난화로 북극 탄소 배출 증가...기후변화 더 심화 가능성"
2018.07.12	중앙일보	북극 동토층의 온실가스 배출 갈수록 늘어... 온난화 악순환
2018.07.12	연합뉴스	온난화에 북극 CO2순환 빨라졌다...탄소저장시간 40년간 13%↓
2018.07.12	뉴시스	[소식]서울대 정수종 교수팀, 극지방 탄소배출량 증가 연구
2018.07.12	YTN사이언스	지구온난화... 북극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영향
2018.07.12	YTN사이언스	지구온난화... 극 지방 CO2 발생 증가 초래
2018.07.12	동아사이언스	기후의 '조정자' 극지가 기후변화 가속하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
2018.08.06	한겨레	더워진 지구, 북극에 숲이 생기고 있다
2018.08.06	에너지경제	[정중오의 기후변화 읽기] 북극 탄소균형 무너져
2018.10.23	KBS	미세먼지 주범 '석탄 발전'이 절반...재생에너지는 '제자리'
2018.10.24	KBS	"분진으로 고통"...석탄은 미세먼지 원인 1위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 성종상교수는 2018.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멘도자에서 열린 ICOMOS 연례총회(Annual General Assembly) 및 문화경관 분과위원회(ICOMOS IFLA ISC CL;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Cultural Landscape)에 참석하였다. 8일부터 13일까지 멘도자에서 열린 ISC CL Annual Meeting에서 성교수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회원 가입 및 기존 회원의 승격을 심사하고, 정원을 세계유산적 가치로 인정한 플로렌스선언(Florence Chart, 1982)를 새롭게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에 참가하여 논의하였다. 같은 기간에 열린 Conference에서 성교수는 “From Barrier to Development to a Booster for Local Rehabilitation : Cognition Change on Historic Heritage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ISC CL의 전문위원(Expert/Voting Member)이자 선거

관리위원(Sub-committee on Nomination and Election)이기도 한 성교수는 그 동안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를 동위원회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특히 지난 해 12월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우리 대학원의 황기원 명예교수를 ISC CL의 명예위원(Honorary Member)으로 천거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 황기원 명예교수는 ICOMOS 내 28개의 분과위원회를 통 털어 유일한 한국인 명예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

- ▶ 조경진 교수는 2018년 8월 베를린 Meinblau와 주독 한국문화원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전망대를 주제로 한 '페이싱 노스 코리아(Facing North Korea)'를 개최하였다. 전시는 도시조경계획연구실 소속 6명의 팀원과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DMZ에 설치한 전망대에 대한 도큐멘테이션과 아카이브 영상을 선보였다.
- ▶ 2018년 10월 25~2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Prada Media Lab에서 독일 Hybrid Space Lab이 주최하는 Deep Space: Re-signifying Valle de los Caidos Workshop에 참가하였다. 한국의 DMZ 아트프로젝트사례를 발표하였고, 공간재구성에 관한 워크샵 패널로 참여하였다.
- ▶ 2018년 12월 14~16일까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Pacific Rim on Community Design Network 컨퍼런스에서 커뮤니티계획과 설계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본 네트워크의 2012년 주최국으로 20th Anniversary에 스피커로 참여하였다.

환경조경학과 이유미 교수

- ▶ 이유미 교수와 이찬중(석사과정)은 7월 18일과 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IFLA) World Congress에 참여하여 "Smart Library for 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올해 IFLA 학술대회는 Biophilic City/Smart Nation/Future Resilience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이유미 교수는 10월 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 건축학과의 Architectural Research Think Tank 포럼에서 "LIM-VR: The Establishment of Landscape Information Model Using Virtual Reality Sim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환경조경학과 김세훈 교수

- ▶ 김세훈 교수는 2018년 8월 말 환경조경학과 서승우, 유수하 학생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IFES & ICSADU 컨퍼런스 참여했고 "Playability for Cities"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 ▶ 11월에는 성남시로부터 성남하이테크밸리 수석기획가로 위촉되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요구되는 도시설계 비전 수립을 진행 중이다.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

- ▶ 송영근 교수는 다양한 국내외 국제학술행사에서 연구발표 활동을 하였다.
 - 백두산 포럼 (중국 연변대학, 8. 26), 카나자와 경관조례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본 카나자와, 8. 31), 도시 생물다양성 및 설계 국제 컨퍼런스 (남아공 케이프타운, 9. 12), 국제 경관생태공학회 심포지움 (대만 타이중, 11. 27), 미국 지구물리학회 (미국 워싱턴DC, 12.13) 등에서 학술발표, 초청강연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 또한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복원기술 개발(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한중일 도시생태계 연구 워크숍(서울대, 10.7~9)을 주관하며 일본 교토대학, 중국 칭화대학, UN대학 연구자들을 초청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10.31~11.1) 을 통해 일본 녹화공학회 역대회장단을 초청하여 교류하였으며, "훼손유형별 진단평가 체계 및 생태복원 모델개발 (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특별세션을 공동주최 하였다.

신임 교수 인사: 환경계획학과 정현주 교수

정현주 교수가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부교수로 부임하였다. 부임 첫 학기인 2018년 2학기에는 '도시구조연구'를 강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젠더와 도시계획', '공간계획의 질적연구방법론' 등을 신설하고, '관악모듬강좌-서울'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6년여간 연구교수로, 4년여간 전임교원(부교수)으로 재직하면서 인문학(HIK)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중 출판한 15권의 저역서(공저 및 공역 포함) 중 3권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현주 교수의 연구주제의 키워드는 젠더, 이주, 공간이다. 대안적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통해 공간과 인간의 모빌리티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낮은 페미니즘 지리학이라는 하위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젠더관계가 도시와 공간, 인간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으로 이들이 젠더관계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가 주요 연구질문이다. 또한 학제적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공간과 젠더에 대한 각각의 이론과 통찰을 심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이주연구에 응용하여 이주여성, 다문화공간, 이주정책과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 향후 아시아라는 확장된 지리적 맥락 속에서 국제적 비교공동연구를 통해 이주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최신 동학을 포착하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구화 시대에 초국가적이고 다문화적인 공간의 형성이 한국의 도시와 나아가 통일시대 한반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포용도시 및 여성친화도시 등 도시 정책담론에서 젠더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계획에서 젠더를 비롯한 타자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정책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환경대학원이 젠더, 다문화, 탈경계 등의 새로운 분야로 학문적 지평을 확대함을 물론 이론과 정책을 연계하는 고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석·박사 과정

5.1 2017학년도 후기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

2017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2018년 8월 29일 수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47명(환경계획학과 27명, 환경조경학과 20명), 박사 12명(환경계획학과 7명, 협동과정 조경학 5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는 석사학위자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박선아, 나나야우, 김수, 환경조경학과 임종호, 임혁위, 제시카, 노승민 학생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2018년 8월 29일 졸업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환경조경동문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중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한 임길진 교수를 기리며 유가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2018년 2학기에는 **환경조경학과 서승우 학생(석사과정)**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양은주(석사과정), 바트생겔(박사과정), 심소정(석사과정), 환경조경학과 김소연(석사과정)과 2017년도 학생회장이었던 박영수(석사과정)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학 전공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8년도 2학기에는 **강태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학 전공 재학생 중 논문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8년도 2학기에는 **장리아(박사과정)**학생과 **이동광(석사과정)**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조경동문 장학금**은 환경조경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2018년도 2학기에는 **환경조경학과 김연정(석사과정)**학생에게 수여되었다.

5.2 학생회 활동

1) 50주년 행사: 학생 만족도조사 발표

환경대학원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행사를 위해,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대학원의 물리적 환경, 수업 만족도, 행정 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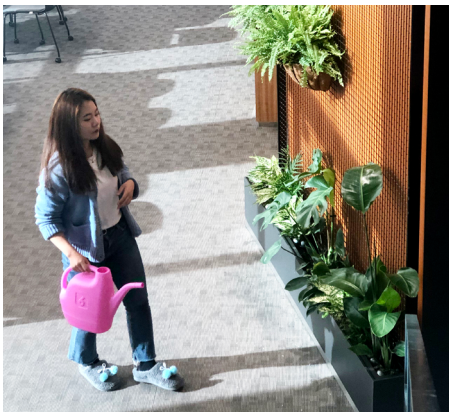
사와 환경대학원에 대한 바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동문 및 내빈을 모신 자리에서 학생회장 한수정 부학생회장 은정민이 함께 짧은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학과사무실에도 전달되었다.



2) 아랫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활동

환경대학원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오픈 플랫폼' 내에 작은 무인카페 공간인 '아랫정원'이 생겨 사랑을 받고 있다. '아랫정원'은 학생회가 주관한 학생 공모 및 투표를 통해 당선된 이름으로, 당선인 한수정(도시및지역계획학과 석사 3기)은 이름의 기원에 대하여 "정원은 문학에서 곧잘 세계에 대한 은유로 일컬어지며,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원 가꾸기는 세상을 일구어나가는 인간의 지적 노력에 대한 묘사로 자주 사용된다"며, "이 공간이 환경대학원 성원들의 지적 상상력을 위한 장소로 마련되었다는 의의에 맞게, 또 환경대학원 명물인 옥상정원(하늘마당)과 대칭되는 느낌으로 작명해 보았다"고 밝혔다.

아랫정원 탄생 이후로 학생회는 아랫정원의 정원사로 자처하며, 카페 공간 관리, 세미나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오픈 플랫폼과 세미나실에서는 게시된 운영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부 독서 등 학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아랫정원에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공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머그컵과 싱크대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3) 기말고사 맞이 간식행사

공부에 힘쓰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기말고사 기간 중 간식 행사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순식간에 줄을 서, 준비한 머핀과 커피는 금세 동이 나며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다. 기말고사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로비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친 서로를 위로하고 잠시나마 웃음꽃이 피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6.1 SGS 제35기 출범 및 오픈특강

1) SGS 제35기 출범

지난 8월 30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룸에서 제35기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국토, 도시, 환경 분야가 맞이하는 도전과 과제를 직시하면서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2019년 2월까지 20회의 정규강좌, 4회의 오픈특강 등 30회 강좌와 국내외 답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성종상 원장은 “공간·환경 분야의 국내 최초인 본 최고위과정은 서울대 내 전체 공개강좌 평가에서 지난 6년간 연달아 최우수 평가를 받아 질적으로도 최고 수준임을 인증 받고 있으며, 최상의 교육과 최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34기에 이어 주임교수를 맡은 전

상인 교수는 “‘국가대표 공간지식 재생학교’로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프로그램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의 지위를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35기 과정부터 환경조경학과 조경진 교수가 부주임교수로 함께 한다.

35기는 전, 후반기 총 18주 동안 30회의 교육과 국내답사 및 해외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문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동문, 재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특강을 4회 마련하여 각 이슈에 해당하는 비중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e-환경논총 통해 간략한 강의노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1	개강특강 -분단의 풍경을 보다, 전망대 프로젝트	조경진 교수
2	공간계획의 인문사회학	전상인 교수
3	왜 도시를 압축해야만 하는가?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4	오픈특강 I -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의 언어	김은성 KBS 아나운서,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 박사
5	건축도시공간, 연구-정책연구-국책연구소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6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그리고 도시의 혁신	이영성 교수
7	서울선언 - 주변부로부터 조감한 "대서울"의 역동성	김시덕 교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축적의 길, 스케일업 혁명	이정동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
9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10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전략 -상업용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김현석 대표/STS개발
11	MaaS와 미래교통	안석환 과장/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12	모빌리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재호 소장/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연구소
1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지방 관계	이태동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14	도시화와 기후변화	정수종 교수

15	오픈특강 II - 시를 산문의 경계는 어디인가?	정호승 시인
16	부동산정책과 시장변화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대학원
17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와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前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8	북한경제와 새로운 남북경협 가능성	이석 박사/KDI 경제전략연구부
19	통일과 남북한 교통체계의 통합	안병민 박사/한국교통연구원
20	여성주의와 공간계획	정현주 교수
21	여행 속 도시공부 - 도시재생사업과 새로운 관광지의 탄생	서현정 대표/뚜르 디 메디치
22	오픈특강 III - 포스트 휴먼 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	김기봉 교수/경기대 사학과

후반부에는 조경, 환경 분야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5기에 참여하는 25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성민(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구창용(SKE 대외협력실 상무)

권현복(경원목재 대표)

김연수(현대종합설계 상무)

김영삼(서울시 산지방재과장)

김원호(해안건축 소장)

김재용(정림건축 상무)

두철언(김포시청 장기본동장)

박상섭(디에이그룹 전무)

박지만(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교수)

송재식(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장)

신은주(남곡농원 대표)

엄형원(PMK 대표)

윤강호(로프캠프 대표)

이종대(바른도시개발 회장)

이창재(현대토건주식회사 대표)

주용돈(대한소재 대표)

최두희(한솔EME 대표)

최성필(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검사)

최판규(이천시청 도시계획과장)

최현실(서울시 공원조성과장)

편성희(중소벤처기업부 음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현재환(밸류아트텍 대표)

홍성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협회장)

황정화(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2) SGS 35기 오픈특강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 35기에서는 모두 4회의 오픈특강을 마련하였다. 오픈특강은 기존에 수료한 펠로우는 물론, 환경대학원 석 박사과정 재학생 및 동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35기 전반부에는 3회의 오픈특강이 열렸다. 9월 13일에는 김은성 KBS 아나운서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의 언어', 11월 8일에는 정호승 시인의

'시와 산문의 경계는 어디인가?', 12월 13일에는 '포스트 휴먼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되었다. 오픈특강에는 매회 20명 내외의 수료한 펠로우 동문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제에 따라 다수의 석 박사과정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6.2 SGS 제35기 국내답사

35기 도시 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 일정으로 강화도와 교동도를 다녀왔다. 첫째 날은 “강화 교동도에서 생각하는 분단의 풍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동도 제비집에서 김영애(새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로부터 “평화의 섬, 교동도” 이야기를 듣고, 교동도 대룡시장, 향교, 월선포, 망향대 등

을 둘러보았다. 이어서 “분단의 풍경을 보다, 전망대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진 교수의 개강특강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장명희(한옥문화원 원장(SGS 34기))의 소개로 강화도 ‘학사재’를 답사하였다. 이번 국내답사에는 성종상 대학원장, 전상인 주임교수, 조정진 부주임교수 비롯한 16명의 35기 펠로우가 함께 하였다.



시민정원사

8월31일 서울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2018년도 하반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시작되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방식으로 정원문화에 참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위주의 과정을 본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되다가 2016년부터 정원에 적합성이 높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의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정옥주 교수, 외부강사 정우건 소장(현 감이다esign 소장)으로 구성되었고, 교과편성은 다음과 같다.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도시생태와 정원	정원설계1	정원설계2	정원설계3	현장답사 - 천리포수목원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	정우건 소장	성종상 교수	정우건 소장	

2018 가을학기 서울시민정원사 과정 77명의 수강생들은 10월 19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으로 답사를 떠나 수목원 투어와 함께 조경식재식물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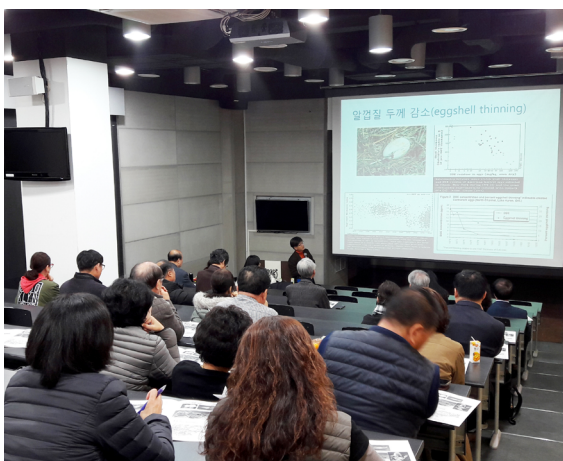
시민환경대학

시민환경대학 과정은 2009년부터 매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관악구청 녹색환경과에서 함께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11회 간 59명의 수강생과 함께 시작된 '제 11기 시민환경대학 과정'은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의 학·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악구의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또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장이 되고 있다.

이번 학기 강사진은 환경계획학과의 김정욱 명예교수, 이동수 교수, 홍종호 교수, 윤순진 교수, 오능환 교수, 정수종 교수와 공과대학 한무영 교수, 자연과학대학 이은주 교수, 수원대학교 장영기 교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현정 연구교수로 구성되었고,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김정욱 명예교수	한국사회 지속가능한가?	장영기 교수	미세먼지의 현황과 문제점
윤순진 교수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동수 교수	일상속의 화학물질: 가슴기살균제만 문제인가?
오능환 교수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이현정 연구교수	4대강과 도림천
한무영 교수	기후변화와 물	장수은 교수	지속가능한 교통
이은주 교수	기후변화와 극지방 생태계변화	홍종호 교수	환경보전이 경제를 살린다
정수종 교수	기후변화와 아시아의 생태계변화		

이번 11기 수강생은 미세먼지, 유해화학제품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며, 심도 있는 질문으로 매주 열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1기부터 10기까지의 수료생은 663명이며, 이번 2018년 제11기 시민환경대학 과정을 수료한 43명의 수강생은 12월 14일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수료식을 했다.



동문소식

9

동창회

9.1 환경대학원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저녁식사와 함께 환경대학원 50주년 및 홈커밍데이의 공식만찬이 시작되었다. 전병성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성종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동문회 소개와 자랑스런 환경대학원인상, 공로패 등이 수여되었다. 특히 '자랑스런 환경대학원인상'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환경대학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귀감에 본이 되는 동문이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송두영 동문(SGS 22기,

대승산업 대표)과 정영선 동문(조경'73, 조경설계사무소서안(주) 소장)이 선정되었다.

김안제, 최상철, 임강원, 유병립, 양병이, 김기호, 박종화 등 여러 명예교수들이 참석하여 5분 스피치 시간을 가졌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동문들에게는 은사의 말씀을 오랜만에 들어볼 기회가 되었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퓨전국악동아리 '여민락'을 초청하여 가을 정취를 더하였다.





동문 동정

10.1 석·박사과정

- **김수현 동문**(도시 92박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018년 11월 9일부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었다.
- **김주영 동문**(환경 '15, 농촌진흥청 KOPIA 볼리비아센터 책임연구원)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첫 기사, '안데스 산맥의 정기를 받은 토착민과 동고동락하는 사연(링크 <http://omn.kr/u2ex>)'를 시작으로 한국-볼리비아 국제개발협력 현장과 남미 환경이슈 소식을 국내에 전달하고 있다.
- **조명래 동문**(도시 79, 환경부장관)은 2018년 11월 9일부로 환경부장관에 임명되었다.
- **이상대 동문**(도시 87, 박사 92,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30(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역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지역학회는 지역분석,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 정책 분야의 학문공동체로서 다수의 환경대학원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 **이계원 동문**(환경 94, 박사 96, 공유경제연구소 대표)은 지난 7월 13일 공유경제 를 출간했다. 공유경제 도서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IT 기반 위에 환경가치도 고려한 같이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기존 시대의 기술이나 체제보다 나은 새로운 기술이나 발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IT 발달로 소유보다 더 편리한 공유의 시대가 오고 있다. 기존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으로 인한 소유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공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공유경제란 무엇인지, 공유경제의 3대 구성요소(경제성, 환경성, 편리성)와 다양한 공유경제 사례(주거, 오피스, 자동차, 의류)를 담고 있다. 또 공유 플랫폼 모델과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같이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공유경제 /이계원 지음/부크크/2018).

- **엄정희 동문**(조경 98, 경북대학교 교수)은 2018년 9월부로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조교수)에서 경북대학교 산림과학부 조경학부 조경학전공(조교수)으로 이직했다.

- **소윤상 동문**(교통 13, Wheel Sidekick 대표)은 9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자전거를 재배치하는 시스템인 '공공자전거 이용자 참여형 재배치 서비스'를 출품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2018(WSCW)'의 일환으로 열린 이 대회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소윤상 대표는 '스마트시티 창업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 **박윤진 동문**(조경 95, 오피스박김 대표, 미국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설계교수)은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지도교수상(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10.2 SGS

- **SGS 총동창회**(회장 송두영, 사무총장 최송휴)에서는 11월 13일(화), '포포인즈 바이 웨라튼서울 강남호텔'에서 기획장단 및 동창회 임원단이 모여,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2019년 초에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박찬정(16기, GDG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現동창회 부회장을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박찬정**(SGS 16기, GDG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는 10월 5일(금)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년 건축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좌에서 네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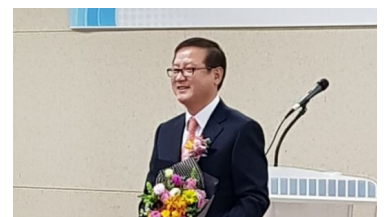
- **SGS 24기 자치회**(회장 유병영, 사무총장 전영성)에서는 7월 26일(목), DAANCEON STONE & GALLERY를 방문하였다. 24기 김봉섭((주)단천 대표)의 초청으로 유병영 자치회장을 비롯한 24기 펠로우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SGS 24기 자치회**에서는 12월 11일(화), 사당동 파스텔시티 6층 '경복궁' 한식집에서 2018년 송년모임 겸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복승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사무총장에는 이영강(미래E&C 대표)가 선임되었다. 송년모임에는 유병영 자치회장을 비롯한 24기 펠로우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김동호**(SGS 24기) 前서울북부고속도로 사장은 지난 3월 5일, 경기도 부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3년간 부천도시공사를 이끌게 된다.



■ **박창화**(SGS 24기) 前과천시 부시장은 12대 포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상훈**(SGS 28기) 前국토부 동서남해안 발전기획단 기획관은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SGS 28기 자치회**(회장 유태식, 사무총장 한선아) 11월 22일(목), 광화문 정동 ‘어반가든’에서 2018년 송년모임 가졌다. 송년모임에는 유태식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28기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 **SGS 30기 자치회**(회장 최원만, 사무총장 신현범)에서는 11월 16일(금), 17일(토), 1박2일의 일정으로 ‘제주 역사 문화 생태 탐방’행사를 개최하였다. 첫날에는 골프팀과 탐방팀으로 나누어, 골프팀은 라온CC에서 운동을 하였고, 탐방팀은 서귀포 이중섭거리, 에코랜드 곳자왈 생태견학 등을 하였다. 둘째 날에는 모두 함께 요트투어와 43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제주 탐방 행사에는 최원만 자치회장을 비롯한 30기 펠로우 16명과 펠로우 가족 등이 20여 명이 함께 하였다.



■ **SGS 30기 자치회**에서는 12월 10일(월), ‘진풍정’ 서울역점에서 2018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최원만 자치회장을 비롯한 30기 펠로우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강완수**(SGS 30기, 대동녹지건설(주) 회장)은 자사에서 시공한 ‘연제 롯데캐슬 데시앙 아파트 조경’이 ‘제 6회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해왔다. 대동녹지건설은 제1회 대상, 제2회 우수 상에 이어 3번째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강완수 회장은 2017년에는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조경 건설인이다.



■ **손혁재**(SGS 30기) 前수원시정연구위원장은 10월 1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 **이진수**(SGS 30기, 라움팰리스 대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혁신 정책 등을 제안하는 임기 1년의 정부혁신국민포럼운영위원에 임명돼 위촉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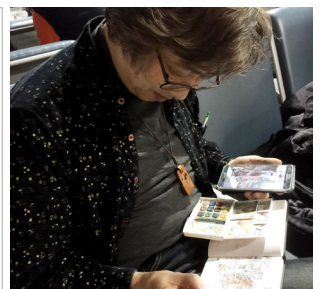
■ **SGS 32기 자치회**(회장 지진호, 사무총장 이경훈)에서는 10월 26일(금), 27일(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태안MT를 다녀왔다. 첫날에는 태안 현대더링스CC에서 운동을 하고, 둘째날에는 해미읍성 등을 둘러보았다. 32기 MT에는 지진호 자치회장을 비롯한 32기 펠로우 15명이 함께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에서는 12월 13일(목), 을지로 ‘순천만남도한식’에서 2018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지진호 자치회장을 비롯한 32기 펠로우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임진우**(SGS 32기, 정림건축 대표)는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임진우의 ‘감성풍경화첩’ 전시회를 11월 7일(수)부터 12월 29일(토)까지 개최했다.



■ **SGS 33기 자치회**(회장 이영권, 사무총장 엄형원)에서는 7월 14일(토), 15일(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다섯 번째 문화탐방행사인 '고흥 지역문화 탐방' 행사를 개최하였다. 첫날에는 분청문화박물관,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였다. 둘째 날에는 소록도, 우주발사전망대, 사자바위, 용바위 등을 둘러보았다. 고흥 탐방에는 전상인 주임교수님과 이영권 자치회장을 비롯한 33기 펠로우 16명과 펠로우 가족 등이 20여 명이 함께 하였다.



■ **SGS 33기 자치회**에서는 10월 20일(토), 여섯 번째 문화탐방행사로 '한양도성 성곽길 답사' 행사를 가졌다. 운동주문학관에서 출발하여 창의문, 청운대, 말바위, 와룡공원, 혜화문으로 코스를 잡아 진행하였으며, 이영권 회장을 비롯한 33기 펠로우 10여명과 펠로우 가족 등이 함께 하였다.



■ **김상연**(SGS 33기, 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수원시 연무동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되었다. (사진(좌))



■ **SGS 34기 자치회**(회장 김남규, 사무총장 서미경)에서는 10월 2일(화)~3일(수), 1박 2일의 일정으로 횡성의 윌리힐리조트에서 펠로우쉽 투어 행사를 개최하였다. 첫날에는 윌리힐리 골프코스에서 운동을 하고, 둘째날에는 힐링숲코스에서 휴식과 친교시간을 가졌다. 전상인 주임교수와 김남규 자치회장을 비롯한 34기 펠로우 11명이 함께하였다.



■ **SGS 34기 자치회**에서는 11월 18일(일), 북한산 등산모임을 가졌다. 전상인 주임교수와 김남규 자치회장을 비롯한 34기 펠로우 13명이 함께하였다.





■ **SGS 34기 자치회**에서는 12월 12일(수), '텍사스테브라질 센터 러시티점'에서 2018년 송년모임을 가졌다. 김남규 회장을 비롯한 34기 펠로우 16명이 참석하였다.



■ **SGS 35기 펠로우**들은 9월 13일(목), 전상인 주임 교수와 조경진 부주임교수를 모시고 낙성대 '레드락'에서 개강모임을 가졌다.



■ **SGS 35기 펠로우**들은 10월 4일(목), 자치회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현복(경원목재 대표)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감사에 황정화(법무법인 한법 변호사), 사무총장에 이종대(바른도시개발 회장)가 선임되었다.



■ **SGS 35기 자치회**(회장 권현복, 사무총장 이종대)는 11월 9일(금), 용인 은화삼CC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 권현복 회장을 비롯한 35기 펠로우 7명이 참석하여 친교시간을 가졌으며, 35기 골프모임의 대표로 주용돈(대한소재 대표)가 선임되었다.



■ **SGS 35기 자치회**는 12월 1일(토), 용인시 백사면에 위치한 남곡농원을 방문하였다. 35기 신은주(남곡농원 대표)의 초청으로 전상인 주임교수와 권현복 자치회장을 비롯한 35기 펠로우 16명이 참석하였다.



■ **SGS 35기 자치회**는 12월 13일(목), 35기 과정의 전반기 수업을 마치고, 종강모임을 가졌다. 이 중 대 35기 사무총장을 비롯한 35기 펠로우 14명이 참석하였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2018.6~2018.11)

“동문 여러분들의 발전기금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규모	기부자 및 기부금액
1억 원 이상	강완수(SGS 30기, 대아종합조경(주) 대표이사) 1억 원
1,000만 원 이상	임강원(환경대학원 명예교수) 3천만 원(1억 원 약정) 이진수(SGS 30기, ㈜라움 대표이사) 1천만 원(1억 원 약정)
500 ~ 1,000만 원	조경 전공 인간환경디자인연구실 졸업생 일동 600만원(1천만 원 약정)
100만 원 미만	<p>환경관리전공 학술활동 및 장학기금 강신규(환경93, 강원대학교 교수) 김현국(환경01, 국립환경과학원) 박년배(환경00, 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삼(환경96, 삼성 SDS) 육근형(환경9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p> <p>환경대학원 위임 전제열(도시03,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정광욱(환경00, 삼성SDS)</p> <p>환경대학원 교수 발전기금(총 2억 원 약정) 최막중(환경대학원 교수) 120만 원 전상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영성(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경민(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성수(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이영인(환경대학원 교수) 75만 원 장수은(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동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홍종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오능환(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윤순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조경진(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성종상(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손용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이유미(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 김세훈(환경대학원 교수) 60만 원</p>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지금 바로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단체 기부 모두 가능)



(1만 원부터)



(일시납, 분할납, 약정 후 월납)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만 주세요

문의 | 대외협력조교 윤병석 02-880-5669 gsesnews@snu.ac.kr

|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p>환경대학원 재학생 장학금 (연간 재학생 22명, 약 2천만 원) ※ 여러분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p>	<p>국제학술활동 경비 지원 (연간 재학생 12명 내외, 약 1천만 원)</p>	<p>환경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 (학생 연구 및 복지 공간 개선)</p>
---	---	---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제공)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패 제작 (서울대 본부/연구공원 명예의 전당 등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1억 원당 1년 1회)	포스코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 (1억 원당 1년)
	기부자 디지털 게시 (서울대 본부 명예의 전당)	근조기 발송 서비스	중앙도서관 평생 이용 미술관, 박물관 무료
1천만 원 이상	발전기금 회원카드 발급	중앙도서관 이용(1년)	기부자 명패 제작 (환경대학원)
		호암 교수회관 할인	
1백만 원 이상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 제36기 모집 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활동으로 발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과정이 가을에 출범하던 방식에서
2019년부터는 3월에 출범하여 11월에 수료하는 일정으로 개편됩니다.
36기 과정에 참여할 분들을
새해 계획을 구상하는 지금부터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기의 모집마감은 2019년 2월 22일(금)까지입니다.
상시접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전화 02-880-8525 E-mail snusgs@snu.ac.kr
